

# 그의 길, 우리의 길

- 섬김의 원형으로서의 빌립보서 2장 6-11절

황현숙 <<< 협성대학교 교수 / 신약학

## 1. 본문사역

- 6 그는 하나님의 존재양식으로 계셨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취하지 아니 하시고
-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존재양식을 수용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 8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 10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으며
- 11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빌 2:6-11).

## 2. 본문 위치

이 그리스도 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바울은 서신 서두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다른 서신들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수식하며 사도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을 단순히 ‘종’이라고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빌립보교회 교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는 표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들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단순히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한 데는 빌립보서만의 독특한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섬김이라는 말을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자신의 삶의 모습 그리고 디모테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모습까지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3장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에 관해 ‘자신을 비어 종이 되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존재양식은 비움이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자신의 삶이 지향해야 할 원형으로 보고 자신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4:13)고 고백한다.

이 서신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풍부한 인간성과 죽음과 삶에 직면해서 그가 취하는 태도를 알게 된다.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감옥에 갇힌 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신 곳곳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넘치는 정감 어린 편지를 띄울 수 있는 사도의 마음은 그 원동력을 그리스

도의 삶과 죽음에서 얻고 있다.

2장 6-11절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낮춤(2:6-8)과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는 높임(2:9-11)이라는 두 부분으로 명백하게 나뉘어진다. 2장 6-11절은 단독으로도 완벽한 독립문을 이루고 하나의 찬양시로 읽힐 수 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불리던 찬가라고 보기도 하는 이 노래는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깊은 애정을 보이며 간략한 인사말 다음에 서두를 교회를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1:3-11). 이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가 복음 전파의 문제로 고민하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를 확인한 다음(1:12-26) 교회가 행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1:27-2:18). 밖으로는 일치단결하여 믿음의 투쟁을 굳건히 하고(1:27-30) 안으로는 사랑과 겸손 및 화합을 이루어 서로 간에 존중과 섬김을 이루어야 한다(2:1-4).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성찰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공동체의 화목과 친교, 화합의 일치에 대한 훈계가 이어지고 이 일치를 위한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강조한다. 일치된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해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2장 5절은 이러한 문제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리스도 찬가를 도입하기 위한 가교로 사용된다. 이 찬가는 공동체에 주어지는 권고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거를 가지는 공동체로서 항상 그에게서 그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

### 3. 본문 주석

**2:6** ‘하나님의 본체’, ‘모습’으로 번역되는 morphe는 ‘모양, 형상, 외모, 껍질’ 등을 나타내는 말로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와 능력의 현

존 방식'을 나타낸다. 또한 이 단어는 70인역 등에서 '영광'과 동일하게 번역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존재양식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7절의 '종의 형체'와 다시 대구(對句)를 이룬다. 신약성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선재사상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선재양식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신분, 지위, 위치였으나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2:7 세 개의 문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이어서 인간으로 현존함을 묘사한다. '자신을 비움'은 '종의 현존'으로 구체화된다. 자유로운 자가 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움'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 신분이 종이 되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람과 같이'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말이다. 인간과 같이 나약함을 함께 나눈다는 말이다. 선재하는 신적 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고 신성과 정반대의 존재가 되어 인간들의 무상성을 함께 겪게 되었다. 인간의 공허함이 이제 비우고 낮춘 계시자에게서 그의 정체성이 되어 그는 종의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theos와 doulos가 대립되어 있다.

신약성서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예수의 비유에서 인간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로서(마 24:45; 8:9; 6:24; 눅 17:7-10 등 다수) 사용된다. 그러나 doulos는 특별히 바울서신들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용어라기보다는 신학화하여 사용된다. 대부분 그리스도의 지배권 영역 바깥에 있는 '죄의 종'(롬 6:17), 우주적 세력의 노예(갈 4:3, 8-9 외 다수) 등과 같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쓰인 경우가 바울서신들에서 자주 나타난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자유한 자이나 모두를 얻기 위해 모두에게 종이

되었다(고전 9:19)고 하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 한다(고후 4:5)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 역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빌 2:22) 종처럼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다. 골로새서에서 두기고를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군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골 4:7)고 말하며 에바브라디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골 4:12)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마 20:27)는 사실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8** 복종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존재양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복종과 겸허, 그리고 헌신적 사랑의 새로운 징표로 제시된다. ‘낮춤’이라는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으로서 육체로 계시되고 그러한 하향의 사건은 다시 반전을 겪게 된다.

**2:9** 대 역전이 일어난다. 자신을 낮춘 자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 가고 모든 것이 끝장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간섭해 들어오신다. 인간의 낮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가 한 것과 반대 되는 일이며 자신에게 보여 준 섬김과 순종에 대한 보상이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주’라는 이름으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신다.

**2:10** ‘하늘’과 ‘땅 위’, ‘땅 아래’는 우주 전체를 말한다. 우주적 차원의 종말 드라마가 시작된다. 이사야 45장 22-25절을 연상시키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승리를 연상시킨다. 세상을 노예화한 세력들의 자리에 이제 우주의 주권자가 등장하고 그는 이제 세상을 평정하게 된다.

**2:11**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로 우뚝 세우는 구원 사건의 궁극적 목적이다. 전 세계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예수의 종으로서의 순종은 고난의 순종으로 이해되며 이 완전한 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공정이 응답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들어 있는 사상은 영지주의나 다른 여타 지혜사상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올리어진다는 유대사상이 배경으로 들어 있다. 선재하던 자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죽음이라는 극점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로 높이셨다.

이 찬양문은 그리스도가 인간 실존의 비천함을 수용하고 세상에 대해 섬기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 서로를 수용하고 겸손히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낮춤의 행위에 있다. 섬기고 낮추는 자의 현실이 교회의 실존을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빌립보서 2장 6-11절의 그리스도 찬가는 ‘섬김’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 4. 인간의 낮춤과 하나님의 높임

사도로서의 바울의 삶 자체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가 받는 고난과 환난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 주는 표징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젠가 나중에 주어질 보수를 담보로 하여 열심히 추구하는 일상적인 삶에 덧붙여진 어떤 부가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보수를 바라고 하는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바로 그러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현실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고전 9:16).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현재화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갈 6:17)로서 날마다의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오히려 그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낮춤과 고통에 동참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위해 고난 가운데에 굳게 설 수 있는 능력, 고통 가운데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바울은 희생과 고난 없이 부활만을 기대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미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다. 불신자들은 이교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망각하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축복을 특권으로 누리려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은사가 풍부한 삶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 됨을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통이며,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세상을 위한 그의 섬김의 행위를 그 원형으로 보고 그와 같이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며 자신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표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웃을 위한 고난과 희생은 곧 은혜이며, 복음을 위한 그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전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춤’과 ‘종’이 된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동참의 사건을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빌 1:7).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는 것은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너와 나,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고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한다.

불행한 이를 하나라도 두었다면 누구도 편히 잘 권리가 없다. 기적은 과거에 한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이다. 영원히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에서나 증명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배부르게 하며 구원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구원 자체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주어 먹게 하였고 우리에게 영을 보내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십자가 사건은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세상의 강자 논리에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는 약자의 논리를 가져온 사건이다. 경쟁과 투쟁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셨다. 그것은 바로 삶의 원형이 되는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이다.

메시아는 헌신적 사랑의 화신이며 아가페의 헌신이다. 그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을 구한 헌신적 사랑의 전형이다. 그가 가신 길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고 우리가 이웃과 만날 때 살아 움직인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섬김에서 드러난다.

## 5. 구체적 실천

빌립보서 2장 6-11절의 그리스도 찬가의 낮춤과 높임이 신학적 근거



라면 예수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섬김의 예를 보여 준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요한복음 13장 4-12절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고별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고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요 13:15). 예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7)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예수의 행위와 사명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요구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고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는 사명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섬김의 대상은 특정한 대상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 받을 자와 심판 받을 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5-36).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44)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평범한 일들이 곧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25:35-36)이다. 그렇게 단순한 일들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생

각지 않았던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들은 도무지 언제 그들이 임금에게 도움을 드렸는지 모른다(마 25:37-39).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평범한 것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사랑과 섬김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좋은 일이라고 계산하지도 않는다.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심판자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허다한 사소한 일들 속에서 그들을 만났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또한 이웃을 돕는 것은 예수를 돕는 것이다.

정죄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그들이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그들이 도와야 할 만큼 왕이 곤경에 처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25:42-44). 그들의 죄는 그들이 굉장한 악행을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이웃의 도움을 거절한 데에 있다. 예수는 스스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들과 동일시했다.

## 6. 선포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의 삶 자체가 준거가 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요약한 빌립 보서의 그리스도 찬가는 그리스도 사건을 요약해 주며 우리에게 그의 삶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 역시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이웃에 대한 섬김과 희생, 봉사를 지향

하고 있다. 종말 심판의 기준은 신앙도 종파도 아니고 기도와 예배보다도 우선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으나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 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분의 삶의 양식, 존재 양식을 따라 그 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분을 높이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분을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듯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모든 자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하듯 그들을 높이시리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신앙 가운데 지고지순한 가치는 바로 이웃에 대한 섬김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다. 구름에 뜬 신앙이 위로는 줄 수 있어도 참된 신앙은 일상에서 나온다. 우리의 사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위대해진다.

성서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 없이는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힘이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섬기며 헌신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에 취해서 영원한 사랑과의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져 있는 약간의 시간이다.

**:: 황현숙** 이화여자대학교(B.A., M.A.)를 나와 독일 에얼랑엔대학교(Dr.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협성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있다.